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초등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진로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지능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박 순 희

2020년 8월

초등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진로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지능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김성봉

박순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6월

박순희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최보영



위 원 박정환



위 원 김성봉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20년 8월



<국문초록>

# 초등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진로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지능의 매개효과

박 순 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이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진로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초등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진로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지능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 내 5, 6학년 학생 415명이며, 측정도구는 가족 내 사회적 자본 척도, 진로자기효능감 척도, 자기성찰지능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진로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지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과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진로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진로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자기성찰지능과 진로자기효능감의 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자기성찰지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초등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진로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지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자기성찰지능은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초등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자기성찰지능, 그리고 진로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와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자기성찰지능을 높여줌으로써 진로자기효능감도 함께 높여준다는 점과 자기성찰지능이 이 두 변인의 부분적인 매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관련 교육기관에서는 자기성찰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담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충분한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은 초등 고학년 학생으로 하여금 진로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가정에서는 효과적이고 다양한 사회적 자본이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 가족 내 사회적 자본, 진로자기효능감, 자기성찰지능

# 목 차

국문 초록 .....	i
목 차 .....	iii
<b>I. 서 론 .....</b>	<b>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및 가설 .....	6
3. 용어의 정의.....	6
<b>II. 이론적 배경 .....</b>	<b>9</b>
1. 진로자기효능감 .....	9
가. 진로자기효능감의 개념 .....	9
나. 진로자기효능감의 하위요소 .....	10
2. 가족 내 사회적 자본 .....	13
가. 사회적 자본의 개념 .....	13
나.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개념 및 하위요소 .....	15
3. 자기성찰지능 .....	17
가. 자기성찰지능의 개념 .....	17
나. 자기성찰지능의 하위요소 .....	19
4. 선행연구 고찰 .....	21
가.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진로자기효능감과의 관계 .....	21
나. 자기성찰지능과 진로자기효능감과의 관계 .....	25
다.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자기성찰지능과의 관계 .....	27
라.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진로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지능의 매개효과.....	28

<b>III. 연구 방법</b>	30
1. 연구대상	30
2. 측정 도구	31
3. 연구 절차	35
4. 분석 방법	36
<b>IV. 연구 결과 및 해석</b>	37
1. 기술통계	37
2. 가족 내 사회적 자본, 진로자기효능감, 자기성찰지능의 상관관계	40
3.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진로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지능의 매개효과	42
<b>V. 논의 및 제언</b>	45
1. 논의	45
2. 제언	48
참고문헌	49
Abstract	59
부록	62

## 표 목 차

표Ⅱ-1	진로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과 구성 요소 .....	12
표Ⅲ-1	연구 대상자의 성별과 학년 구성 .....	31
표Ⅲ-2	진로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요소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	32
표Ⅲ-3	가족 내 사회적 자본 척도의 하위요소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	34
표Ⅲ-4	자기성찰지능 척도의 하위요소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	35
표Ⅳ-1	진로자기효능감의 기술통계 .....	37
표Ⅳ-2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기술통계 .....	38
표Ⅳ-3	자기성찰지능의 기술통계 .....	39
표Ⅳ-4	가족 내 사회적 자본, 진로자기효능감, 자기성찰지능의 상관관계 .....	41
표Ⅳ-5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진로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지능의 매개효과 .....	43



## 그림 목 차

그림 II-1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진로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지능의 매개효과 .....	29
그림 IV-1 초등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진로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지능의 매개효과 .....	43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적 환경 속에서 다양한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로를 계획한다. Super는 ‘진로란 개인이 일련의 발달과업에 직면하여 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방식으로 이러한 발달 과정을 이해하는 생애과정’이라고 개념지었다(김봉환, 최인재, 허은영, 황매향, 2010). 또한 그 과정에서 기초가 되는 진로 인식과 탐색이 중요하다고 하였다(유현정, 2020, 재인용). 현대 우리 사회는 과학 기술의 발전과 세계화에 따라 일과 직업의 세계가 점차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8)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의 변화,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등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재양성을 위한 방법으로 ‘생애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진로교육 강화’를 제안하고 있으며, 그 중 다양한 초·중등 진로교육 개선 방안이 제시되며 생애진로개발의 시작을 초등교육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소영(2016)의 주장처럼 초등학교 시기에 형성된 진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태도는 앞으로의 진로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진로 발달에 있어 초등학교 시기는 중요한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희망직업을 조사한 결과 10년 전과 비교하여 희망직업이 다양해지고, 1위의 비율 및 상위 10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9). 이는 진로 탐색을 위한 꾸준한 교육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실시한 진로교육은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직업세계 강조’, 제7차 교육과정부터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등장,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안에 ‘진로활동’ 등장, 2009개

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성하는 등 진로교육의 영역을 점차 확대해왔고(이기정, 2018),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초등 진로교육에 대한 연구는 평균 11.2편이던 논문 편수가 2011년 이후 평균 20.5편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김영환, 강두봉, 이승민, 2017). 이 또한 그간 초등교육 현장에서 진로교육과 연구가 꾸준하고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는 증거가 된다. 앞으로도 학교와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진로교육을 통해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파악하고, 다양한 직업 세계를 탐색할 수 있는 장을 꾸준히 마련해야 한다.

진로 발달을 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아동 스스로의 진로자기 효능감을 들 수 있다. Hacket과 Betz(1981)는 자기효능감이 인간행위의 다양한 심리적 변인을 설명하고 예언하는 데 유용하다는 사실에 주목,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 분야에 적용하여 자기효능감을 진로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포함시켰고(이진술, 2013), 박명심(2007)은 진로자기효능감을 진로와 관련된 행동을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정의하였다. 이은경(2001)은 중·고·대학생들의 진로 발달 양상과 이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진로결정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을 파악하였고, 김선중(2005)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음을 증명하였다. 이를 통해 진로 발달에 있어 진로자기효능감은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진로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 학교 및 지역사회 같은 환경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가정은 아동의 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곳이었으며, 지금도 그러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부모의 기대와 지원은 아동이 성숙한 진로결정을 하도록 독려하며, 부모의 지원이나 승인이 없다면 아동들은 다양한 진로 가능성을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Ferry, 2006). 그 밖에도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진로 발달의 관계를 살핀 선행연구들은 여럿 있었다. 이기순(2017)은 상업계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가정 내 사회자본이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가정 내 사회자본이 잘 갖춰진 경우,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백혜영(2019)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은 진로성숙도에 정적이고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혔으며, 비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자기효능감과 주관적 안녕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 밖에도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모의 긍정적 학습 관여, 부모 애착,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질이 자녀의 진로성숙이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계속적으로 이뤄져 왔다(강명심, 2009; 공성화, 2016; 김정미, 2007; 송은지, 2014; 윤석은, 2017; Barnes & Olsen, 1985; Hamilton, 2000). 이처럼 부모와 자녀의 가족 내 상호작용은 자녀들의 진로 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진로교육에 있어 중요한 변인이다.

하지만 선행연구를 종합해 본 결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 발달 연구는 부모 및 학업 성취 등 외적 요인에 의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앞으로는 학생의 내적 세계와의 연관성을 밝히는 것으로 연구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기정(2018)의 주장처럼 본 연구 또한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개인의 내적인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그 중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성찰지능이다. 부모의 진로에 대한 과도한 기대에 대한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자기성찰상담을 실시한 이재용(2008)의 연구처럼 자기성찰의 과정은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게 하여 미래에 마주할 부정적 상황에도 심리적으로 덜 혼동하고 덜 좌절하도록 준비할 수 있게 도와준다(장한아, 2011). Gardner(1993)가 제안한 다중지능 이론 중 자기 자신의 정서와 능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조절하며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능력을 일컫는 자기성찰지능은 개인이 자아실현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능이며, 다중지능이론 속의 다른 지능들을 활성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개인의 발달은 물론 생애 전반에 요구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권오정,

2008). 자기성찰지능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식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강점, 욕구, 능력에 관한 지식으로 스스로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 사람인지에 대해 안다는 것이며(Gardner, 1999), 자신의 욕구, 필요, 열망, 최상의 학습전략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므로 지금과 같은 직업 세계의 변화를 예측하기 힘든 다변화 시대에 진로탐색과 결정에 매우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김선경, 2007). 이에 자기성찰지능은 다양한 사회적 자본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진로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강지혜, 2017; 김말선, 2012; 김미경, 2015; 민예나, 2017; 민지희, 2016; 오주원, 2019; 황진아, 2015).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자기성찰지능이 모두 진로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자기성찰지능을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설 아래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기성찰지능의 매개효과를 밝히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자기성찰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이 설명되어야 하는데, 그간의 선행연구에서는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소인 부모와의 애착,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부모의 교육적 관여 세 가지 측면과 자기성찰지능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박지영(2015)은 사회적 지지와 자기성찰지능 및 진로성숙도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에서 부모, 또래, 교사가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주는 환경에서 자기성찰지능은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고 자기성찰지능은 매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밝혔다. 정유정(2017) 또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소인 부모지지가 자기성찰지능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적 상관이 있으며, 자기성찰지능이 매개 요인임을 밝힘으로써 심리적 측면의 가정환경이 성취적, 자율적, 친애적일수록 자기성찰지능이 포함된 개인적 지능을 높게 지각한 종전의 연구와 연결된다고 하였다. Gardner(1997)가 인간의 지능을 해석할 때 개인의 지능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개인의 경험과 환경 또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지지자를 만났을 때 능력을 계발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위와 같은 영향 관계에서 자기성찰지능을 매개 요인으로 가설을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강진(2020)은 중·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 간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지능이 부분매개요인으로 작용함을 밝혔고, 정유정(2017)은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업적 실패내성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지능의 부분매개효과를 증명하였다. 이강진(2018)은 중년여성의 가족스트레스와 삶의 의미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지능이 완전매개함을 확인하였고, 박지영(2015)은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지능의 부분매개효과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인간이 지각한 환경적 요인들이 자신의 어떠한 심리적 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때 자기성찰지능은 부분 또는 완전 매개의 역할을 한다는 공통적인 결과를 보여주며, 이 연구의 가설을 뒷받침해준다.

학생의 희망 직업이 있는지 조사한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 중 희망 직업이 없는 학생의 비율이 12.8%로 나타났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9). 적은 비율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한창 미래에 대한 기대가 넘쳐야 할 시기에 있는 아동들이 희망하는 직업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실에서 만나는 많은 초등학생들을 통해 다양한 가정환경 속에서 저마다 다른 진로 인식을 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지각한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진로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속에서 아동의 자기성찰지능이 매개적 효과를 갖는지 밝힘으로써,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같은 환경적 요인만큼이나 개인의 내적 요인인 자기성찰지능 함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초등학생들의 진로자기효능감을 키우는데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며, 가정 및 학교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들의 긍정적 진로 발달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연구 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초등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진로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지능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자기성찰지능은 초등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진로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가설. 자기성찰지능은 초등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진로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 3. 용어의 정의

### 가.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자기효능감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이론을 진로에 적용한 개념으로 진로 선택과 관련되는 개인적 효능감을 의미하며, Hacket과 Betz(1981)에 의해서는 직업적 자기효능감이라는 이름으로 제안되었다. ‘진로결정효능감’, ‘진로효능감’,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효능감’ 등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른 용어를 사용하나, 그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다. 국내 여러 학자들(남미숙, 1998; 배종훈, 1998; 이현주, 2007)은 공통적으로 진로자기효능감을 진로와 관련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 또는 믿음이라 표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강지유(2011)가 기존의 CSES-SE를 한국 초등학생의 문화

적 특성과 발달단계에 맞도록 구성하여 통계적 검증을 거친 초등학생용 진로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진로자기효능감을 박명심(2008)이 제시한 진로관련 행동(진로탐색, 진로결정, 진로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이 특정한 진로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갖는 자신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나. 가족 내 사회적 자본

Bourdieu(1986)의 사회적 자본 정의는 포괄적인 사회관계 속에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연결망과 집단소속이 해당 당사자에게 주는 다양한 사회적 기회를 창출한다고 볼 수 있다(김상준, 2004). 일반적으로 사회적 자본이란 아동이 그들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에서 형성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의 규범을 의미하는데(Putnam, 2000), Coleman은 사회적 자본을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가족 외 사회적 자본으로 나누고 이것이 청소년의 인적자본 축적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가족 내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하는 대표적인 것은 부모와의 관계라 할 수 있고, 가족 외 사회적 자본은 학교 내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Coleman의 이론에 근거한 사회적 자본 중에서 가족 내 사회적 자본에 초점을 맞추고 선행연구를 근거하여 7가지로 분류된 개념을 세 가지로 정리한 백혜영(2019)의 개념과 척도를 사용하였다. 즉 부모와의 애착,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부모의 교육적 관여를 가족 내 사회적 자본으로 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Coleman(1988)의 주장과 같이,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을 가족 내 경제적 혹은 물질적 자본과 인적 자본 등과 같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달리, ‘구성원 간의 신뢰감, 소속감, 애착, 유대감, 의무감을 기반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한 개인에게 축적되는 자본’으로 정의하였다.



#### 다. 자기성찰지능

자기성찰지능은 Gardner(1983)가 주장한 다중지능이론 중 하나로 정확한 자기이해와 자기조절을 토대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동기화하는 능력을 의미한다(윤인애, 2012). 국내에서는 문용린, 김주현, 박은실(2003)이 자기 자신의 정서와 능력을 바르게 이해하고 조절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으로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능이라 정의 내린 바가 있다(이강진, 2018). 본 연구에서는 권오정(2008)이 초등학생의 자기성찰지능을 검사하기 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자기성찰지능을 ‘자신의 정서와 능력을 인식하고 조절하여 자아실현과 목표달성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 Ⅱ. 이론적 배경

### 1. 진로자기효능감

#### 가. 진로자기효능감의 개념

Bandura(1977)는 ‘어떠한 결과를 얻는데 있어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을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라고 했다.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이끌어내는 동기, 인지적인 원천, 행동의 방향을 이끌어내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며, 성공에 필요한 신체적·지적·감성적인 원천을 움직이게 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강지유, 2010).

자기효능감의 주요한 근원으로 Bandura(1977)가 제시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의 성공 경험이 자기효능감을 형성한다.

둘째, 다른 사람의 성취를 보는 대리 경험이 자기효능감을 형성한다.

셋째, 주변으로부터 듣는 언어적 설득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형성한다.

넷째, 자신의 능력과 기능에서 취약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얻게 되는 생리적이고 정서적인 상태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이성식, 2007).

남미숙(1998)의 연구에서처럼 자기효능감이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에 근거하여 이를 진로교육의 영역에 적용했을 때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기대감은 진로 발달의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적용한 개념이 바로 진로자기효능감이다.

Hackett와 Betz(1981)는 처음 직업적 자기효능감(occupational self-efficacy)이라는 용어로 진로자기효능감이론을 제안하였다. 그 밖에도 진로자기효능감

과 관련하여 여러 학자의 정의를 살펴보면 용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Solberg, Good 및 Nord(1994)는 개인이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하는데 있어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갖는 자신감 정도를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이라 정의하였으며, 김남순과 배종훈(1998)은 진로자기효능감에 대해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과 그것의 관련 행동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신념이라고 하였다. 홍설(2006)은 진로결정효능감은 자신의 진로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신념 또는 유능감으로 정의하며 강조점에 약간의 차이를 두기도 했으며, 박명심(2008)은 진로자기효능감에 대해 개인이 특정 영역에서의 자기 능력에 대해 갖는 자신감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진로자기효능감의 정의는 학자들이 강조하는 점에 따라 용어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김남순, 배종훈(1998)의 연구에서 밝힌 대로 ‘진로 활동에서 갖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공통된 개념을 담고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의 행동 예언력을 바탕으로 진로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의 행동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 보는 점도 공통된 측면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자기효능감을 박명심(2008)이 제시한 진로관련 행동(진로탐색, 진로결정, 진로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이 특정한 진로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갖는 자신감’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직업활동에 진입하기 이전의 잠정적 준비단계이자 탐색단계에 있는 초등 고학년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개인의 진로 발달수준을 예측하는 변수로서 진로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다.

#### 나. 진로자기효능감의 하위요소

그간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다양하게 제시된 진로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과 구성 요소들 중 대표적인 것을 정리해 놓은 내용은 표Ⅱ-1과 같다.

Betz와 Hackett(1981)의 직업적 진로자기효능감척도(occupational career

self-efficacy scale)에서 하위영역은 ‘교육진로자기효능감’과 ‘과업진로자기효능감’으로 나뉜다. 교육진로자기효능감에 대한 정의는 ‘어떤 직업인이 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을 자신이 있다.’이며, ‘그 직업을 갖게 된다면 그 직업이 요구하는 과업을 충실히 해낼 자신이 있다.’는 과업진로자기효능감의 정의이다.

Taylor와 Betz(1983)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와 Betz와 Klein 및 Taylor(1996)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SF)는 서영석(2006)이 정리한 것처럼 하위영역이 직업정보수집, 목표선택, 미래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로 5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직업정보수집’은 관심 있는 직업을 찾아내 그 직업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목표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목표선택’을 의미한다. ‘미래계획수립’은 진학이나 취업 등에 대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며, 진로 상황에서 난제에 부딪칠 때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 ‘문제해결’ 요인이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 욕구 등을 정확히 평가하고, 그에 맞는 직업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을 ‘자기평가’라 한다.

박명심과 김성희(2006)가 개발한 진로자기효능감척도에서는 하위요소로는 진로탐색효능감과 진로수행효능감, 진로결정효능감이 구성되어 있다. 진로탐색효능감의 구성 요소는 자기평가, 직업흥미, 진로탐색, 직업정보수집이고, 진로결정효능감은 목표선택, 진로결정정도, 진로선택확신성, 결정과제, 진로결정양식의 개념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진로수행효능감은 교육진로, 과업진로, 교육요구, 직업요구, 진로준비행동, 진로성과, 수행목표, 수행능력, 미래계획수립, 문제해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강지유(2010)는 박명심(2008)의 척도를 바탕으로 Betz와 Klein 및 Taylor(1996)가 개발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의 구인타당도 재점검 후, 한국 초

등학생들의 발달단계와 문화적 특성에 맞도록 척도를 직접 구성하였다. 또한 하위요소는 박명심(2008)과 같이 진로탐색효능감과 진로수행효능감, 진로결정효능감으로 구성하였다.

표 II-1 진로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과 구성 요소

연구자	하위영역	대상	구성 요소		
			진로 탐색	진로 결정	진로 수행
Betz 와 Hackett(1981)	교육진로자기효능감	대학생			○
	과업진로자기효능감				○
Taylor와 Betz(1983) Betz, Klein과 Taylor(1996)	자기평가	대학생	○		
	직업정보수집		○		
	목표선택			○	
	미래계획수립				○
박명심과 김성희(2006)	문제해결	고등학생			○
	진로탐색효능감		○		
	진로결정효능감			○	
	진로수행효능감			○	

‘진로탐색효능감’이란 진학하려는 상급 학교 및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와 관련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뜻하는데, 진로탐색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자신의 능력과 가치, 욕구 등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적합한 직업을 평가하고 탐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박명심, 2008).

‘진로결정효능감’이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급 학교 및 전공학과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자신감으로,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 세계의 정보와 자신에 대한 인식들이 함께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김보경, 2012).

‘진로수행효능감’이란 진학과 관련된 학업을 잘 수행하여 미래에 직업을 가졌을 때 직업생활을 잘 수행해갈 수 있는가와 관련된 자신감으로, 이것이 높은 학생은 진로와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크다(서지연, 2011).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박명심(2008)에 의해 다양한 관점을 유사개념끼리 묶어 제시한 구성 요소에 따르고, 이를 초등학생에 맞도록 만든 강지유(2010)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 2. 가족 내 사회적 자본

### 가. 사회적 자본의 개념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용어는 최초로 사용한 학자가 누군지 명확하지 않다. 사회적 자본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Bourdieu(1986)는 자본이 하나의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70년대 초반, 권력과 불평등의 재생산 양식에서 사회적 자본의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히며 사회적 연결망을 적절히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자 능력으로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이 제기된 것이다(전경하, 2012).

Coleman(1988)의 사회적 자본 개념은 그 기능에 의해 정의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자본이 행위자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면서 구조 내의 행위자의 행동을 촉진시킨다고 정의한다(김경근, 2000). 미국 고등학생들의 교육적 성취와 사회적 불평등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면서 인적 자본보다 사회적 자본이 교육의 성취를 이룩하는 데 훨씬 영향이 크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남궁근, 2007). Putnam은 Bourdieu의

주장의 범위를 집단으로 확장시켜 사회적 자본에 대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정과 협력을 용이하게 하고 사회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네트워크, 규범 및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으로 간주한다(이봉주, 2010; Putnam, 1993).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연구 목적에 따라 학자들마다 개념을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여 아직까지 그 개념 및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 핵심요소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고, 사회적 관계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공통 요인을 도출시킨 이인자(2011)의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은 사회관계 속에서 포함되어있는 것이고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 및 이용된다. 또한 비가시적 이득을 창출하며 활용 가능한 사회 관계적 자원이고, 신뢰, 규범, 호혜성 등을 포함하는 관계구조로 공공선 추구라는 기초를 제공하는 자원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을 공동체 유지를 위한 행동 양식인 중요한 자원으로 보았다.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을 가족 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in the family)과 가족 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outside the family)으로 구분하였다. 부모가 보유한 인적 자본이나 경제적 자본이 결핍되어 있더라도 가족 내외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자본을 충분히 활용하면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인적자본 창출에 있어 사회적 자본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백혜영, 2019). 그리고 많은 선행연구들은 자녀의 발달에 있어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검증하였다(김은정, 2006; 신원영, 강현아, 2008; 이봉주, 김선숙, 김남희, 2010).

아동기는 청소년 시기에 비해 가족 특히 부모의 영향력이 강한 시기이며, 가족은 아동의 발달에 매우 밀접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여러 갈래 중 가족 내 사회적 자본에 그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나.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개념 및 하위요소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학생의 개인적인 발달에 주는 영향력은 학교와 지역 사회 및 국가와의 관계까지 과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가족 내 사회적 자본에 대해 Coleman(1988)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관심, 부모와 자녀 간 유대감 그리고 관심과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시간 투입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가족 내에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며 많은 관심을 보이고 관찰을 하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때 비로소 자녀의 발달에 바람직하게 기여할 수 있는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형성됨을 강조하는 것이다(이세용, 1998).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은 정의를 내리는 학자별로 구성 요소에 있어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간의 선행연구와 학자들의 공통적 입장들을 정리해보면 관계적 차원과 구조적 차원 그리고 인지적 차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 관계적 차원은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거는 기대와 관심, 이해나 배려, 신뢰 등의 대인적인 관계를 말한다.

둘째, 구조적 차원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공유하는 사회적 관계의 연결망으로 부모의 학교 참여, 교육에 대한 정보공유 능력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확대하고 사회자본을 생성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인지적 차원은 부모와 자녀 간에 통용되는 규범적인 성격을 가진 것들로 가족 내 행동을 일관적으로 유지, 발전시켜주는 공동의 목표나 소망, 생활규범, 종교 활동, 가족 형태 등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이라고 보고 있다(김나래, 2011; 이기순, 2017).

본 연구에서는 Coleman(1988)의 주장과 같이,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을 가족 내 경제적 혹은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 등과 같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달리, 구성원 간의 신뢰감, 소속감, 애착, 유대감, 의무감을 기반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한 개인에게 축적되는 자본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은 객관적이고 타당화된 척도가 마련되지 않은 한계가 있어 연구자의 관심 영역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되어왔다는 걸 알 수 있다.

Coleman(1988)은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을 가구 내 성인의 수,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자녀 성취에 대한 부모 기대, 부모의 통제 및 훈육, 자녀의 친구에 대한 부모의 인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 수준과 질로 측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후 많은 연구들은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을 다양하게 측정하였다. 이규재(2003)는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 자본 형성에 대한 촉진과 방해요인을 측정하는 지표와 대상 관계 친밀도를 계량화하여 측정하는 지표로 구분하여 측정하였고, 김선숙과 김예성(2011)은 가족 관계에 대한 부모의 만족감, 부모 자기효능감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가족 내 사회적 자본으로 측정하였다. 박희훈(2014)은 자녀의 학교생활, 일상 생활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부모와 자녀 간 대화의 빈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고, 이기순(2017)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사회적 자본을 관계적, 구조적, 인지적 차원으로 나누고 학생이 인지하는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 밖의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도 부모-자녀의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을 다양한 하위요소로 설정하였다(강현아, 우석진, 강현주, 2012; 김경근, 2000; 김현숙, 2011; 신원영, 강현아, 2008; Duboi, Eital & Felner, 1994; Lee & Croninger, 2001)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은 여러 선행 연구에서 부모-자녀 사이의 애착, 부모-자녀 간 대화(의사소통), 부모의 양육 태도, 부모의 교육적 관심과 지원,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적 기대 수준, 부모의 학교 참여, 부모의 친구 인지 등으로 크게 7가지로 분류하였다. 백혜영

(2019)은 이를 부모와의 애착,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부모의 교육적 관여로 묶어 개념화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의 하위요소를 이용하여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였다.

### 3. 자기성찰지능

#### 가. 자기성찰지능의 개념

Gardner(2006)는 자신이 제안한 다중지능 8가지를 대상과 상징, 인간에 대한 지능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었다. ‘대상’에 기초한 영역 안에는 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 자연지능이 있고 주로 물질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상징’에 기초한 영역 안에는 언어지능, 음악지능, 논리수학지능이 해당되고 이것들은 기술보다는 개념, 이야기, 이론 등과 관계가 깊고 학업 성취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인간’에 기초한 영역으로는 인성지능이 있는데 대인관계지능과 자기성찰지능이 바로 그것이다. 인성지능은 인간에 대한 지식 및 이해와 관련되며, 대인관계지능과 자기성찰지능은 상호 보완적이다. 이 중에서도 개인의 독특성과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될 때 가장 중요한 지능이 바로 자기성찰지능이다(권오정, 2008). Gardner(1993)에 의해 등장한 자기성찰지능은 정확한 자기이해와 자기조절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동기화하는 능력을 의미한다(윤인애, 2012).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는 자기성찰지능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이해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는 대인관계지능과 구별되며 이 지능의 핵심은 자기 자신의 감정과 욕구, 근심 그리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의 특성을 구분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합해 개인의 다양한 목표에 도달하도록 활용하는데 있다(권오정, 2008).

Gardner(1997)는 개인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 자기성찰지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자기성찰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에 대해 건강한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자신의 목표, 감정, 장단점을 잘 파악하며 인생에서 해야 하는 중요한 결정을 현명하게 내리는데 이를 사용할 줄 안다고 하였다. 반면에 자기성찰지능이 낮은 사람은 자아에 대한 혼란을 겪으면서 자신을 주변 환경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하여 학령기 이후에는 자율적이고 통합된 자아실현에 있어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Gardner, 2006).

그 밖에도 Covey(2002)는 자기성찰지능에 대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인간을 인간답고 도덕적으로 되게 하는 능력이라 정의하였고, Shearer(2002)는 자아와 자신의 장단점을 인식하여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문용린(2004)은 자기 스스로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찰을 하게 해 자신과 사회에 대하여 이해하고, 보다 생산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라 하였다. 김주현(2005)은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고 조직하며 계발하는 능력과 자기감정 및 행동을 조절해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고, 김홍주(2012)는 자기 마음의 움직임에 깨닫고 이 마음의 활동이 가져오는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고 반성해 본래의 선한 본성이 우세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려는 자기수양과정이라 하였다. 또한 안채윤과 오미경(2013)은 자기 정서와 능력에 대한 조절과 이해, 활용을 기반으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기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정의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정서와 능력에 대한 인식과 조절 그리고 자아실현과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이라는 요소들이라 할 수 있다(정유정, 2017).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아성찰지능을 ‘자신의 정서와 능력을 인식하고 조절하여 자아실현과 목표달성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능

력'이라 정의 내리고자 한다.

#### 나. 자기성찰지능의 하위요소

자기성찰지능의 하위요소에 대해 Gardner(2006)는 자신의 감정을 알고 감정의 차이를 식별하는 능력, 감정을 조절하며 행동하는 데 활용하는 능력, 자기 자신의 강점, 욕구 및 능력에 관한 지식 이렇게 3가지로 설명하였다. 대표적인 다중지능검사로 Shearer(1995)가 개발한 다중지능발달평가척도(MIDAS : Multiple Intelligence Development Assessment Scales)가 있고, 이후에 개발된 Shearer(2002)의 MIDAS 프로젝트 SHIP(Student High Impact Project)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기성찰지능을 자기 자신 알기, 목표인식, 감성조절, 행동조절 4가지의 하위영역으로 제시한다. 자기 자신 알기는 자신의 고유한 사고와 능력을 아는 것, 목표인식은 자신의 목표를 알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목표를 수정하고 점검하는 것, 감성조절은 자신의 감정과 정서적인 반응을 조절하는 것, 행동조절은 자신의 정신적 활동과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말한다(권오정, 2008).

문용린(2004)은 자기성찰지능의 하위요소를 감성인식, 동력인식, 미래계획 3가지로 보고, 이를 각각 기능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감성인식'은 지적으로는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이고, 기능적으로는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능력인식'에서는 지적인 측면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력을 갖는 것이고, 기능적으로는 능력을 적절히 조절하고 계발하는 능력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미래계획'에서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인식력을 갖는 것이 지적인 측면이고, 미래에 대한 감정과 행동의 조절 및 준비를 하는 것이 기능적 측면이라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권오정(2008)은 자기성찰지능을 크게 자기이해, 자기조절, 자기설계 3영역으로 구성하고, 각 영역에 대하여 지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으

로 하여 하위영역을 6가지로 설정하였다.

먼저 자기이해영역은 자신의 정서 및 능력에 대한 인식 및 정서활용 능력을 정의한 것으로 지적인 측면으로는 정서와 능력을 인식하는 능력, 기능적인 측면으로는 정서를 적응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으로 구분하였다. 올바른 자각이란 자신에 대해 객관적인 인식을 하게 하는 기본이 되는 것으로, 환경에 적응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바탕이 된다. 또한 자신의 정서를 바르게 지각하는 능력은 자신의 정서는 물론 다른 사람의 정서에도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어 자기 정서 표현은 물론 타인의 감정이나 기분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자기조절영역은 상황판단을 바탕으로 한 정서와 행동의 조절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를 지적인 측면으로 보면 상황에 따른 행동조절을 위한 판단능력을 말하고, 기능적인 측면은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는 충동 통제능력으로 보았다. 자기조절에 대한 여러 논의들은 자기조절능력이 인지적, 행동적 측면의 상호작용작용으로 이뤄진다는 것에 대해 의견을 함께 한다. 또한 여러 가지 연구와 문헌에서 자기성찰지능의 하위요소로 언급된 메타인지와 문제해결 그리고 의사결정은 모두 자기조절에 필요한 능력이며 자기조절을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우선순위를 정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정한 반응에 대하여 사고와 행동의 억제를 통해 얻는 자기통제는 만족지연과 같은 자기조절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환경에 대한 유연한 대처와 적응이라 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을 획득한다는 자기조절영역의 지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을 설명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기설계영역은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성취를 위해 동기화하는 능력으로 보았는데, 지적인 측면으로는 나의 미래를 위한 목표 설정 능력이라 할 수 있고, 기능적인 측면으로는 목표를 성취하는 것과 관련한 성취 동기화 능력으로 구분하였다. 미래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미래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데, 개인의 미래설계는 목표를 세우고 목표실현을 추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래계획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적극적, 생산적, 창의적으로 만들기 위한 목표설정과 성취동기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성찰지능은 다중지능이론 안에서 다른 여러 지능 중 하나로 포함되어 측정되었는데, Shearer와 Jones(1994)의 다중지능 측정검사(HAPI : Hillside Assessment of Perceived Intelligence)를 류숙희(1996)가 번안 및 수정을 하여 개발한 K-HAPI가 대표적이다. 여기서는 총 108문항 중 자기성찰지능 12문항으로 실려 있다. K-MIDAS는 기존의 자기보고형 HAPI를 수정 보완하여 Shearer(1997)가 개발한 다중지능검사(MIDAS)를 번역한 것으로 총 119문항 중 자기성찰지능은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중 16개 문항은 다른 지능들과 중복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독립 문항은 9문항이다. 문용린, 류숙희, 김현진, 김성봉(2001)은 중, 고등학생에게 적용하기 위한 표준화된 다중지능검사지를 제작하였고 여기에 자기성찰지능문항은 10개의 문항이 있다.

권오정(2008)은 이에 처음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기성찰지능척도 37문항을 개발하였고, 이를 이번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 4. 선행연구 고찰

##### 가.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진로자기효능감과의 관계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소인 부모와의 애착,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부모의 교육적 관여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각각 개별적 요소들과 진로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다.

### 1) 부모와의 애착과 진로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애착이란 아동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Waters & Wall, 1987).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은 아동기에 이르러 지속적인 탐색 및 도전적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환경적응과 같은 변화 상황에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Hamilton, 2000). 진로 결정과 같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 있어 아동에 대한 부모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 유나현(2005)은 애착, 심리적독립, 정서지능에 따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있음을 연구를 통해 밝혔다. 송은지(2014)는 초등학생이 인식하는 모 애착과 교육적 관여가 진로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모애착과 진로성숙 간의 관계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음을 밝혀 모가 부재인 가정의 아동들을 배려하는 교육 시스템, 특히 진로교육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밝히기도 하였다. 김정미(2007)는 중학생의 부모애착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부모와의 안정적 애착은 아동들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하여 자신의 적합한 진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탐색하는 태도를 발달시켜준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와의 애착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아동들은 진로와 관련하여 중요한 여러 사람들과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며, 진로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등 이와 관련된 우울 및 불안을 경험한다는 연구도 보고된 바 있다(최현영, 서영석, 2005).

윤석은(2017)은 그의 박사 논문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부모애착과 진로적응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 부모와의 애착을 안정적으로 형성한 학생들은 높은 진로적응성을 보였고, 부모에 의해 제공되는 정서적 지지와 돌봄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협에 도전하거나 자신의 주변 세계를 자신감 있게 탐색한다는 선행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했다. 또한

부모애착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정애착을 형성한 청소년은 높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나타내며, 이는 다시 진로적응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부모와의 애착이 진로자기효능감의 영향을 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2)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진로자기효능감과의 관계

가족 내에서의 의사소통이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감정, 느낌,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상호 간의 공통적 이해를 도모하는 상호 방향적 과정’으로 정의된다(조은경, 1992).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환경 속에서 아동이 자신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적을 것이다. Barnes와 Olsen(1985)은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유형을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도와주는 개방적이며 순기능적인 의사소통유형과 오히려 이를 방해하는 폐쇄적이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으로 구분했다.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가족은 분명한 의사소통망을 성립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발전시켜 나가며 긍정적인 송화효과를 주고받는 반면, 문제형 의사소통을 하는 가족은 의사교환 및 주제 선택에 조심, 주저, 회피하여 비난적 표현을 더 많이 경험함으로써 의사소통에서 거리감이나 벽을 느끼게 된다(강명심, 2009). 또한 강명심(2009)은 중학생 자녀는 부모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하면 할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고 개방형에 반대되는 문제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낮다고 연구 결과를 밝혔으며,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진로결정에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석만(2010)은 부모와의 대화 시간에 따른 진로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며 대화시간이 1시간 이상일 때 진로자기효능감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그리고 공성화(2016)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



는데 개방형 의사소통만이 영향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밝힌 연구들도 있었는데 추진경(2011)은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은 정적인 상관이 있으며 부모-자녀간 폐쇄적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은 부적 관련이 있다고 제시하였으며,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입증하였다. 또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보다 관계 지향적이고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성향이 반영되어 어머니-여학생 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타났다. 박미나(2015)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성별에 상관없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력을 진로결정효능감이 완전매개하였으며, 남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 의사소통 하위요소 중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더 높은 설명력을 보이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진로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부모의 교육적 관여와 진로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자녀의 교육적 발달 및 개인적 발달에 부모의 영향력을 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부모는 특히 교육적 발달과 진로 발달에 대해 자녀를 돕고 싶어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Cochran, 1988), 청소년들 또한 진로 발달 영역에 있어 부모에게 많은 부분 도움을 얻고자 한다(Kotrilk & Harrison, 1989). Phillips와 동료들(2001)의 연구에서는 부모를 포함한 타인이 개인의 진로 결정에 관여하는 방식을 소극적 지지, 무조건적 지지, 진로정보 제공, 진로대안 제공, 권유, 지도, 비평 7가지로 나누었다(선혜연, 2007). 이를 바탕으로 한 이희수(2013)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부모관여방식을 알아보았고, 그에 따른 결과로 목표설정효능감은

모의 격려와 지지가 정적인 영향을 주고, 모의 부적합한 조건에 대한 지적과 부의 부모 경험에 기초한 권유를 통한 관여방식이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순옥(2014)이 부모관여 진로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은 참가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아져, 부모관여 진로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밝혔다.

또한 부모 관여가 어떠한 요인에 영향을 주는데 있어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밝히는 연구들도 선행되었는데, 곽미숙(2015)은 부모의 진로관련 행동과 진로성숙도 사이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밝혔다. 최동민(2015)은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진로관련 행동이 진로결정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다고 하였고, 김대영(2018)은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학습 관여와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그간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부모의 교육적 관여는 아동의 진로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관심과 지원은 아동들의 진로 발달에 있어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즉, 아직까지 자아정체감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의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진로를 선택해 나감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판단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을 하위요소인 부모와의 애착,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관여로 구분하여 진로자기효능감에게 영향을 준다고 밝힌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그간 각 하위요소별로 선행된 연구들은 이처럼 여럿 있어 왔으나, 이를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라 하나의 개념으로 종합하여 진로자기효능감과 관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또 다른 연구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나. 자기성찰지능과 진로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다중지능 이론에 근거하여 진로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프로그램을 개발

한 많은 연구들은 다중이론이 학생들의 진로 교육 및 진로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김말선(2012)은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진로 집단상담에 참여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유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이는 자신의 강점지능과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문제에서 잘 대처하게 하는 훈련과정이 포함되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상담자 준비과정 학생들의 자기성찰과 진로탐색효능감 및 진로적응성의 정적 상관을 밝힌 황진아(2015)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탐색하는 자기성찰일지 작성을 통해 진로문제에 대해 탐색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진로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처 능력이 높아질 수 있음을 밝혔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체험기관 이용 실태를 분석한 김미경(2015)은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체험기관 이용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지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체험기관 이용 만족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성찰지능 중 감정인식과 능력인식 두 차원이 부분 매개하고 있음을 밝혔다. 즉,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은 자기이해와 자기성찰 등 자신에 대해 파악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시사한 것이다. 민지희(2016)의 자아성찰적 표현활동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도 자아성찰적 표현활동의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도를 증진시킨다고 했으며, 민예나(2017)는 초등학생의 강점인식과 진로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고 자기의 강점을 잘 이해한 경우일수록 진로 탐색 및 결정, 진로 수행에 관련된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하였다. 강지혜(2017)는 자기성찰지능과 그 하위변인 모두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고, 오주원(2019)은 서울소재 외국어고등학교 학생의 자기성찰지능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연구하여 학생들의 자기성찰지능은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세부적으로 자기성찰지능의 하위 요인 중 자기이해가 진로성숙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자기이해와 진로관련 성숙도 및 효능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보았을 때, 자기성찰지능은 진로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주며 매개요인으로도 작용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 다.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자기성찰지능과의 관계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자기성찰지능과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어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소인 부모와의 애착,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부모의 교육적 관여 세 가지 측면과 자기성찰지능과의 관계를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지영(2015)은 사회적 지지와 자기성찰지능 및 진로성숙도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에서 부모, 또래, 교사가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주는 환경에서 자기성찰지능은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고 밝혔고, 정유정(2017)은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소인 부모 지지가 자기성찰지능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적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Gardner(1997)가 인간의 지능을 해석할 때 개인은 지능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개인의 경험과 환경 또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지지자를 만났을 때 능력을 계발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는 사회적 지지의 주요 주체인 부모와의 애착, 의사소통, 관여로 분류되는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자기성찰지능과의 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유진(2016)은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모의 과보호와는 별개로 개인 내적 요인인 자기성찰지능이 청소년의 우울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예측변인임을 밝혔다. 모의 과보호는 청소년의 우울과 밀접하지만, 자기성찰지능은 독립적으로 청소년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안나(2019)는 최근 지각된 원가족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등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성찰지능의 조절효과를 밝힌 연

구를 발표했다. 여기에서는 성인이 되어서도 원가족 부모의 양육태도가 현재의 삶의 영향을 미치며, 이때 자기성찰지능은 부정적인 양육 환경에서 영향을 받은 현재의 양육태도가 보다 긍정적으로 조절되는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자기성찰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사랑(2019)의 연구 또한 대학생들이 아동기에 동일한 수준의 학대를 경험했을지라도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돌아보며 성찰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밝히며 자기성찰지능의 향상을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배정선(2018) 또한 학교 적응에 있어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상관이 있으며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만, 양육태도보다 학교적응에 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성찰지능임을 밝힘으로써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자기성찰지능에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뒷받침해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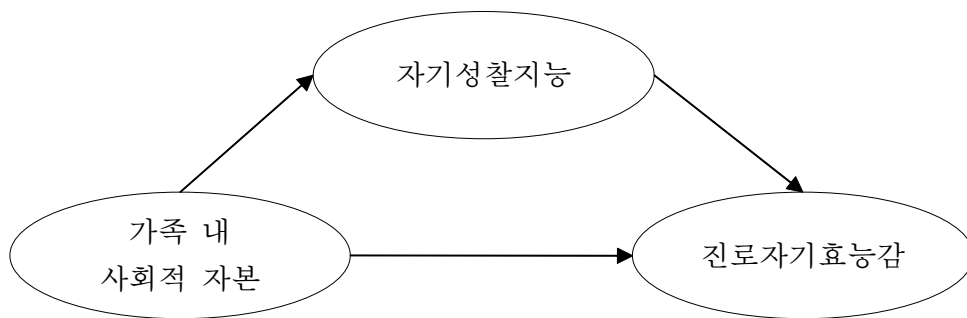
라.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자기성찰지능을 매개로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앞서 살펴본 대로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소인 부모와의 애착,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관여가 진로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되었다(강명심, 2009; 공성화, 2016; 곽미숙, 2015; 김대영, 2018; 김정미, 2007; 박미나, 2015; 송은지, 2014; 유나현, 2005; 윤석은, 2017; 이석만, 2010; 이순옥, 2014; 이희수, 2013; 최현영, 서영석, 2005; 추진경, 2011;). 예컨대 자녀가 부모와의 애착이 높고, 대화가 많이 이뤄지다 보니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부모와 함께 상의를 많이 하게 되고, 진로를 결정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 높은 진로자기효능감을 보였다는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류상아(2003)는 자기성찰지능 중에서 진로지향성에 있어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이 외에도 여러 선행연구들이 자기성찰지능이 진로자기효능감에 주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였다(강지혜, 2017; 김말선, 2012; 김미경,

2015; 민예나, 2016; 민지희, 2017; 오주원, 2019; 황진아, 2015). 또한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자기성찰지능 간에도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는 배정선(2018), 최유진(2016)의 연구를 통해 자기성찰지능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소인 부모와의 애착, 대화, 교육적 관여와의 정적 상관관계가 입증되었다.

이처럼 모든 요인간의 상관관계가 선행연구들을 통해 입증된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요인이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데 있어 자기성찰지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강진, 2020; 박지영 2015; 이강진, 2018; 정유정, 2017)들을 근거로 하여 자기성찰지능이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진로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지 검증(그림Ⅱ-1 참조)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잘 갖춰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자기성찰지능을 매개로 할 때 비로소 진로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밝혀, 아동이 인식하는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을 통해 진로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방안과 개인의 발전 및 적응을 돕는 자기성찰지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초등 진로교육과 상담적 개입에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그림Ⅱ-1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진로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지능의 매개효과

### Ⅲ. 연구 방법

본 장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자기성찰지능을 매개로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대상, 측정 도구, 그리고 자료의 처리 방법을 제시하였다.

####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제주도 내에 있는 10개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5, 6학년 18개 학급의 학생 42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이유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조어나(2014)가 정리한 Ginzberg(1972)의 진로 발달단계 중 시험적 직업선택 단계(tentative period, 11-17세), 그중에서도 흥미단계(interest stage, 11-12세)에서 능력단계(capacity stage, 13-14세)로 넘어가는 과정에 해당되어 자신의 흥미와 능력에 맞는 구체적인 직업 세계 탐색에 있어 중요한 시기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제주도 내의 113개의 초등학교 중 지역별로 제주시 6개교(10학급)와 서귀포시 4개교(8학급)를 임의표집 하였으며, 배부했던 450부의 설문지 중 421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약 93%를 보였다. 알아보고자 한 변인이 환경적인 특성이거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제주도를 제주시와 서귀포시, 중앙과 동쪽, 서쪽 등의 지역별로 나누어 학교를 표집하였으며, 학군에 의해 학교가 결정되는 초등학교 입학방식의 특성상 나누어진 지역 내의 어느 학교를 선택해도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별 임의표집을 실시하였다. 회수된 421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 6부를 제거한

뒤 최종적으로 남학생 216명, 여학생 199명이 응답한 415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학년별로는 5학년 208명, 6학년 207명이었으며 최종 분석에서 활용된 연구 대상자의 구성은 표Ⅲ-1과 같다.

표Ⅲ-1 연구 대상자의 성별과 학년 구성 (N=415)

	5학년		6학년		합계	
	학생 수(명)	빈도(%)	학생 수(명)	빈도(%)	학생 수(명)	빈도(%)
남	113	54.3	103	49.8	216	52.0
여	95	45.7	104	50.2	199	48.0
합 계	208	50.1	207	49.9	415	100.0

## 2. 측정 도구

### 가. 진로자기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강지유(2010)가 기존의 CDESES-SF를 한국 초등학생의 특성과 발달에 맞게 재구성한 진로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진로자기효능감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진로탐색효능감 12문항, 진로결정효능감 6문항, 진로수행효능감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각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 영역별



신뢰도는 진로탐색효능감 Cronbach's  $\alpha$ .89, 진로결정효능감 Cronbach's  $\alpha$ .78, 진로수행효능감 Cronbach's  $\alpha$ .86이며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4이다.

이 검사도구의 하위요소인 진로탐색효능감은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상급 학교 및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탐색을 바탕으로 상급 학교 및 전공 선택 및 결정과 관련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로수행효능감은 진로를 선택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내외부와의 갈등이나 진로 선택이 좌절되었을 때의 해결에 대한 자신감, 미래의 자기 직업과 관련된 일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잘 해결해 나갈 것인가와 관련된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진로자기효능감 전체 신뢰 분석 결과는 Cronbach's  $\alpha$ .955였으며 하위요소별 신뢰도는 .833~.915의 범위로 나타났다. 진로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 항목에 대한 문항 구성 및 신뢰도는 표Ⅲ-2와 같다.

**표Ⅲ-2 진로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요소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소	문항번호	문항 수	신뢰도
진로탐색효능감	1, 2, 4, 6, 10, 14, 18, 21, 22, 26, 29, 30	12	.915
진로결정효능감	3, 5, 7, 9, 11, 20	6	.833
진로수행효능감	8, 12, 13, 15, 16, 17, 19, 23, 24, 25, 27, 28	12	.863
전 체		30	.955

#### 나. 가족 내 사회적 자본 척도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Coleman의 개념을 기반으로 백혜영(2015)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자녀 관계에서 축적되는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은 부모와의 애착,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부모의 교육적 관여 3개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부모와의 애착은 총 18문항(부애착 9문항, 모애착 9문항),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10문항, 부모의 교육적 관여는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총 36문항이다. 백혜영(2015)의 연구에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전체 신뢰도 Cronbach's  $\alpha$ .943이었다.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애착은 동일한 문항에 부애착, 모애착을 각각 측정한 후 두 점수를 합하여 평균점으로 부모애착을 측정하는데, 그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애착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신뢰도 Cronbach's  $\alpha$ .885였다. 또한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억압을 느끼지 않으며, 자유로운 감정 아래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나타낸다.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Cronbach's  $\alpha$ .933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적 관여의 점수 또한 높을수록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많은 것을 나타내며, 신뢰도 분석의 결과는 Cronbach's  $\alpha$ .85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가족 내 사회적 자본 전체 신뢰 분석 결과는 Cronbach's  $\alpha$ .955였으며 하위요소별 신뢰도는 .838~.926의 범위로 나타났다. 가족 내 사회적 자본 척도의 하위요소 구성 및 신뢰도는 표Ⅲ-3과 같다.

표Ⅲ-3 가족 내 사회적 자본 척도의 하위요소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소	문항 수	신뢰도
부·모와의 애착	18	.922
부애착	9	.876
모애착	9	.861
개방적 의사소통	10	.926
교육적 관여	8	.838
전 체	36	.955

다. 자기성찰지능 척도

초등 고학년 학생의 자기성찰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권오정(2008)이 개발 및 타당화한 초등학생용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이해, 자기조절, 자기설계의 3개 영역과 능력 및 정서 인식, 정서 활용, 충동 통제, 목표 설정, 성취 동기화의 6요인에 근거하여 총 3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단계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성찰지능에 대한 지각이 높음을 의미한다. 권오정(2008)의 연구에서 검사 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0 이었고, 하위요소에서는 자기이해가 Cronbach's  $\alpha$ .74, 자기조절이 Cronbach's  $\alpha$ .81, 자기설계가 Cronbach's  $\alpha$ .85의 신뢰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935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소별 신뢰도는 표Ⅲ-4와 같다.

표Ⅲ-4 자기성찰지능 척도의 하위요소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 영역	하위요소	문항번호	문항 수	신뢰도
자기 이해	능력 및 정서인식	1, 2, 3, 4, 5, 6	6	.727
	정서활용	7, 11, 12, 13	4	.688
자기 조절	판단력	25, 27, 28, 33, 34, 35, 37	7	.810
	충동통제	8, 9, 14, 15, 16, 18	6	.756
자기 설계	목표설정	10, 17, 20, 21, 22, 23, 24	7	.757
	성취동기화	19, 26, 29, 30, 31, 32, 36	7	.807
전 체			37	.935

### 3.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초등 고학년 학생이 지각하는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진로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지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제주도 내의 10개 초등학교 5, 6학년 18개 학급의 학생 42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2020년 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총 17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설문 활동을 진행하는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 질문의 내용, 실시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안내했으며 설문 응답 시간은 약 20~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배부된 450부의 설문지 중 421부가 회수되어 약 93%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설문지 중에 불성실한 응

답 설문지를 제외하여 415부를 기본 자료로 활용하였다.

#### 4. 분석 방법

초등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진로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지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초등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진로자기효능감, 자기성찰지능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둘째, 초등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진로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지능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초등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진로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지능의 매개효과가 갖는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1. 기술통계

#### 가.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자기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IV-1과 같이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로 구분하였다. 왜도와 첨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왜도는 절대값이 3 이하, 첨도의 절대값이 10 이하라면 자료의 정규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Kline, 2015), 분석 결과 분석에 이용된 모든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가  $\pm 2$ 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치들이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할 수 있으며, 연구 대상자의 진로자기효능감 점수를 기술통계 분석한 결과는 표IV-1과 같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진로자기효능감의 전체 평균 점수는 3.84점, 표준편차는 0.635로 나타났다. 진로자기효능감 검사는 5점 척도로 되어 있고 3점이 '보통이다', 4점이 '그렇다'이므로 본 연구 대상자들은 진로자기효능감을 대체로 다소 높게 지닌 것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IV-1 진로자기효능감의 기술통계

하위요소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진로탐색효능감	3.86	.682	-.372	-.108
진로결정효능감	3.82	.713	-.366	-.179
진로수행효능감	3.83	.615	-.356	.147
전 체	3.84	.635	-.356	-.089

나. 가족 내 사회적 자본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IV-2과 같이 분석에 이용된 모든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가  $\pm 2$ 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치들이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전체 평균점수는 3.87점, 표준편차는 0.647로 나타났다. 가족 내 사회적 자본 검사가 5점 척도로 되어 있고 3점이 ‘보통이다’, 4점이 ‘그렇다’이므로 본 연구 대상자들은 가족 내 사회적 자본에 대해 대체로 갖춰져 있는 편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IV-2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기술통계

하위요소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부·모와의 애착	4.16	.620	-.908	.373
부애착	4.13	.684	-1.084	.880
모애착	4.21	.627	-1.194	1.416
개방적 의사소통	3.72	.826	-.533	-.055
교육적 관여	3.40	.795	-.269	-.048
전 체	3.87	.647	-.683	.399

다. 자기성찰지능

연구 대상자의 자기성찰지능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한 결과는 표IV-3과 같다. 분석 결과, 분석에 이용된 모든 변인들의 왜도는  $\pm 1$ , 첨도가  $\pm 2$ 를 넘지 않

왔기 때문에 측정치들이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자기성찰지능의 전체 평균 점수는 3.72점, 표준편차는 0.577로 나타났다. 자기성찰지능 검사는 5점 척도로 되어 있고 3점이 ‘보통이다’, 4점이 ‘그렇다’이므로 본 연구 대상자들은 자기성찰지능을 대체로 다소 높게 지닌 것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IV-3 자기성찰지능의 기술통계**

하위요소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자기이해	3.88	.606	-.283	-.210
능력 및 정서인식	3.99	.626	-.382	.102
정서활용	3.72	.818	-.392	-.223
자기조절	3.76	.585	-.157	.147
판단력	3.69	.656	-.117	.111
충동통제	3.82	.641	-.260	-.235
자기설계	3.58	.699	-.209	.088
목표설정	3.50	.779	-.023	1.124
성취동기화	3.67	.730	-.254	-.295
전 체	3.72	.577	-.153	-.082



## 2. 가족 내 사회적 자본, 진로자기효능감, 자기성찰지능의 상관관계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진로자기효능감, 자기성찰지능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4와 같다. 세 변인의 상관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진로자기효능감간의 관계에서 가족 내 사회적 자본 전체는 진로자기효능감( $r=.516, p<.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하위 요인인 부모와의 애착( $r=.383, p<.01$ ), 개방적 의사소통( $r=.529, p<.01$ ), 교육적 관여( $r=.527, p<.01$ ) 모두 진로자기효능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을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진로자기효능감과 자기성찰지능의 관계에서는 진로자기효능감 전체와 자기성찰지능( $r=.763, p<.01$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진로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인 진로탐색효능감( $r=.761, p<.01$ ), 진로결정효능감( $r=.690, p<.01$ ), 진로수행효능감( $r=.740, p<.01$ ) 모두 자기성찰지능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아동의 진로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기성찰지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성찰지능과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의 상관관계는 자기성찰지능 전체와 가족 내 사회적 자본( $r=.590, p<.01$ )이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자기성찰지능의 하위 요인인 자기이해( $r=.532, p<.01$ ), 자기조절( $r=.553, p<.01$ ), 자기설계( $r=.515, p<.01$ ) 모두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정적 상관을 보이며 자기성찰지능이 높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경우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IV-4 가족 내 사회적 자본, 진로자기효능감, 자기성찰지능의 상관관계

	1-1	1-2	1-3	1	2-1	2-2	2-3	2	3-1	3-2	3-3	3
1-1 부모와의애착	-											
1-2 개방적 의사소통	.766**	-										
1-3 교육적 관여	.615**	.732**	-									
<b>1 가족내 사회적 자본</b>	.921**	.924**	.830**	-								
2-1 진로탐색효능감	.372**	.512**	.500**	.497**	-							
2-2 진로결정효능감	.354**	.495**	.508**	.485**	.886**	-						
2-3 진로수행효능감	.375**	.511**	.503**	.501**	.890**	.837**	-					
<b>2 진로자기효능감</b>	.383**	.529**	.527**	.516**	.968**	.953**	.946**	-				
3-1 자기이해	.419**	.523**	.534**	.532**	.675**	.640**	.656**	.687**	-			
3-2 자기조절	.437**	.522**	.576**	.553**	.688**	.619**	.672**	.689**	.706**	-		
3-3 자기설계	.394**	.489**	.554**	.515**	.695**	.611**	.676**	.689**	.658**	.800**	-	
<b>3 자기성찰지능</b>	.460**	.566**	.614**	.590**	.761**	.690**	.740**	.763**	.870**	.921**	.916**	-

\*\* $p < .01$

### 3.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진로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지능의 매개효과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진로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지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접근 모델에 근거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단계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단계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2단계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함께 영향을 줄 때,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설명량이 2단계에서의 설명량보다 줄어들어야 한다. 이때,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완전매개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유의할 경우에는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낸다고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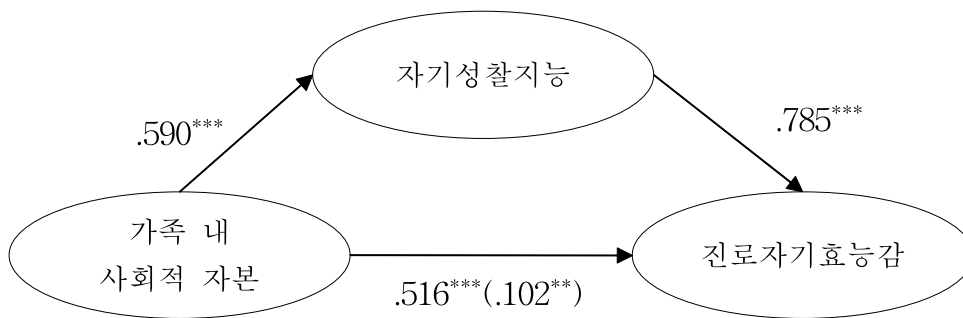
표Ⅳ-5에서와 같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진로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지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매개변인인 자기성찰지능에 미치는 영향력( $\beta=.590, p<.001$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종속변인인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 $\beta=.516, p<.001$ )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단계에서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자기성찰지능을 독립변인으로 함께 투입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독립변인인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beta=.102, p<.01$ ), 매개변인인 자기성찰지능이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 $\beta=.703, p<.001$ )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동시에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2단계보다 유의하게 줄어들었다. 즉, 자기성찰지능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IV-5 가족 내 사회적 자본, 진로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지능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B	$\beta$	t	R <sup>2</sup>	수정된 R <sup>2</sup>	F
1	가족 내 사회적 자본	자기성찰지능	.523	.590	14.849***	.348	.346	136.394***
2	가족 내 사회적 자본	진로자기효능감	.512	.516	12.253***	.267	.265	150.144***
3	가족 내 사회적 자본 자기성찰지능	진로자기효능감	.101 .785	.102 .703	2.601** 17.954***	.589	.587	294.664***

Sobel's test Z=11.456\*\*\*

\*\*p<.01 , \*\*\*p<.00



그림IV-1 초등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진로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지능의 매개효과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자기성찰지능의 부분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검증(Sobel, 1982)을 실시하였다. 자기성찰지능의 매개효과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가족 내 사회적 자본에서 자기성찰지능으로 가는 직접효과 a와 자기성찰지능이 진로자기효능감으로 가는 직접효과 b의 곱으로 정의된다. 이에 매개효과 ab에 대한 Z검증을 실시하였고, 검증을 실시한 결과  $Z=11.456(p<.001)$ 으로 임계치 1.96보다 크므로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진로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지능이 부분 매개의 효과를 보이는 결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V. 논의 및 제언

### 1. 논의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종합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가족 내 사회적 자본, 진로자기효능감 및 자기성찰지능은 상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진로자기효능감의 상관분석 결과 두 변인은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부모와의 애착, 개방적 의사소통, 교육적 관여가 포함되는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소 모두가 진로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이는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소인 부모와의 애착,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교육적 관여를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했던 선행연구 결과(유나현, 2005; 송은지, 2014; 강명심, 2009; 공성화, 2016; 김대영, 2018)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많다고 지각하는 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도 높다는 것을 입증해준다. 즉,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하는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은 앞으로의 개인의 진로 발달에 밀접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이를 보완할 학교 및 사회와 같이 가족 외 사회적 자본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또한 가정에서는 자녀와 지속적인 대화, 교육적 관여는 물론 관심과 사랑으로 애착관계를 견고히 해나가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자기성찰지능과 진로자기효능감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자기성찰지능의 하위요소 모두 진로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상담자 준비과정 학생들의 자기성찰과 진로탐색 효능감의 정적 상관을 밝힌 황진아(201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자

기성찰지능과 그 하위변인 모두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던 강지혜(2017)의 연구 결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통계 결과로 자기성찰지능이 높을수록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며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인 진로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진로자기효능감은 초등 고학년 학생의 자기성찰지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학교와 가정에서는 자기성찰지능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즉,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기성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신의 행동과 생활을 글쓰기, 사색 등을 통하여 살펴보는 습관을 지닐 필요가 있다.

셋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자기성찰지능 사이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자기성찰지능의 각 하위요소들 사이에서도 모두 정적으로 상관을 보였다. 이는 의미 있는 타자인 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주는 환경이 자기성찰지능에 정적으로 상관이 있다고 밝힌 박지영(2015)의 연구 결과,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소인 부모지지가 자기성찰지능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적 상관이라고 했던 정유정(2017)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볼 때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높은 환경에서는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을 높게 지각할수록 학생이 지각하는 자기성찰지능이 높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학생 스스로가 자기성찰의 습관을 지닐 수 있도록 학교와 사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학교와 사회에서는 다양한 부모 교육을 통해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충분히 갖춰질 수 있도록 함께 도와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진로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지능은 부분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매개변인인 자기성찰지능을 통하여 진로

자기효능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예측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는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진로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의 매개효과와 관련이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자기조절 하위 요인을 포함한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성숙도를 높여준다는 김도연, 오옥선, 김성봉(2012)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박지영(2015)의 연구에서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자기성찰지능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와도 흐름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환경적 요인이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줄 때 자기성찰지능이 부분 또는 완전매개를 한다는 관련 논문들과도 같은 맥락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강진, 2020; 이강진, 2018; 정유정, 2017)

이상의 연구 결과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인식한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진로자기효능감, 자기성찰지능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자기성찰지능을 매개로 하여 진로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충분히 갖춰졌다는 것은 아동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취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가정에서는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관심을 통해 올바른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긍정적인 관여를 꾸준히 해 나가야 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진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자기성찰지능이 함께 발달되어야 함을 밝힘으로써, 가정과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기성찰지능을 발달시키기 위한 독서나 글쓰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이 이뤄져야 함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의 자기성찰지능을 키워주면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관계 형성을 통해 진로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도 자기성찰지능 계발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은 뒷받침된다.



## 2. 제언

이 연구는 위와 같은 의의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제한점을 가지고 있어 이에 보완적인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하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의 대상은 제주 지역의 일부 초등학교에 제한되었기 때문에 전체 초등학생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확률적 표집방법을 통해 대표성을 떨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거나, 대상의 범위를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여 타 지역의 초등학생 및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응답자의 반응에 따라서 결과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질문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측정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면접이나 관찰 등의 질적 연구나 주변인들의 평정 등의 측정방법이 병행된다면 더욱 심도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진로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지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자기성찰지능 외에도 이 두 가지 변인을 매개하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뤄진다면 초등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더욱 의미 있는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 참 고 문 헌

- 강명심(2009).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민수(2006). 초등학교 학생의 지역간 진로의식 비교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지유(2010). 초등학생의 진로인식 및 진로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자기주도적 진로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진(2020). 중·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간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지능과 일상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강현아, 우석진, 강현주(2012).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 50(5), 25-38.
- 공성화(2016). 인문사회계열 대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미숙(2015). 부모 진로관련 행동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오정(2008). 초등학생용 자기성찰지능 척도 및 프로그램 개발.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경근(2000).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아동의 학업 성취. *교육사회학연구* 10(1), 21-40.
- 김나래(2011). 가정 내 사회자본이 중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남순, 배중훈(1998). 진로자기효능감의 이론적 고찰. 경상대학교사범대학중등교육연구소. *중등교육연구*, 10, 19~39.

- 김도연, 오옥선, 김성봉(2012).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와  
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5), 71-91.
- 김대영(2018).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와 진로성숙의 관  
계: 학업적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다중매개효과. 전남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말선(2012). 다중지능에 기초한 진로상담이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과 진로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미경(2015). 중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체험기관 이용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지능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경(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셀프리더십, 문제해결력 및 진  
로동기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 최인재, 허은영, 황매향(2010). 한국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진로 발달 특  
성의 변화주이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1(4), 75-94
- 김사랑(2019). 대학생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자기성찰지능이 외상화된 자기체  
계손상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경(2007).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초등진로교육프로그램이 자기이해지능  
발달에 주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숙, 김예성(2011). 아동기 및 청소년기 심리사회발달에 미치는 사회자본의  
영향. **청소년학연구**, 18(9), 53-71.
- 김선중(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환, 강두봉, 이승민(2017). 초등 진로교육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초등교  
육연구**, 30(2), 1-26.
- 김은경(2017). 중등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 : 자기성찰

- 지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은정(2006). 초기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의 역할과 특성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8(3), 33-61.
- 김정미(2007). **중학생의 부모애착, 갈등적 독립,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 태도성숙도와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현(2005).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준호, 노성호, 이성식, 곽대경, 박정선, 이동원, 박철현(2009). **청소년비행론**. 청목출판사.
- 김현숙(2011). 부모의 인적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이 자녀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 빈곤 학생과 비빈곤 학생 차이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0, 123-150.
- 남궁근(2007). 사회자본의 형성과 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쟁점.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13(4), 297-325.
- 남미숙(1998). **초등학생의 진로 자아 효능감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상아(2003). **중학생들의 진로유형 및 진로성숙수준과 다중지능과의 상관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숙희(1996). **지각된 다중지능의 집단 차와 IQ 및 성적과의 관계 분석연구**. 미간행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용린(2004). **지력혁명**. 서울: 비즈니스 북스.
- 문용린, 류숙희, 김현진, 김성봉(2001). **다중지능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교육연구소.
- 민예나(2017). **초등학생의 강점인식과 진로성숙의 관계 :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서울교육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지희(2016). 자아성찰적 표현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 자서전쓰기와 미래말하기 활동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명심(2008). 고등학생용 진로자기효능감 향상 프로그램 개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명심, 김성희(2006). 고등학생용 진로자기효능감 척도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7, 385-397.
- 박지영(2015).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지능의 매개효과. 경인교육대학교 초등학교상담 석사학위논문.
- 박미나(2015). 가족체계 지각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태원(2019). 학교 및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이 저소득층 학생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희훈(2014).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정선(2018).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심리적 독립, 자기성찰지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혜영(2019). 다문화가정 아동과 비다문화가정 아동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과 주관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영석(2005). REBT를 적용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실업계 남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지연(2011).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진로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인식 및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선혜연(2007). 청소년기 진로의사결정에서 부모의 관여 방식.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은지(2014). 초등학생이 인식한 모 애착과 모의 교육적 관여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원영, 강현아(2008). 빈곤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5(4), 7-87.
- 유나현(2005). 애착, 심리적 독립, 정서지능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한구(2018). 2018 KRIVET정책연구. 미래인재 개발과 교육혁신. 2(7), 42-46.
- 유현정(2019). 초등학생 대상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이 진로 인식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상담학 석사학위논문.
- 윤석은(2017). 특성화고 학생들의 부모애착, 진로적응성, 정서지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구조적 관계분석.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인애(2012). 자기성찰지능향상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강진(2018). 중년여성의 가족스트레스와 삶의 의미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지능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은, 주소희(2008). 가족내외의 사회자본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0(2), 113-131.
- 이규재(2003). 가정 배경이 학력 획득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의 영향과 역할.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순(2017). 가정 내 문화자본, 사회자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 상

- 업계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정(2018). 초등학교 고학년의 진로 발달과 학업성취도, 자기 효능감 및 창의적 인성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봉주(2010). 한국아동발달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사회자본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1, 108-141.
- 이봉주, 김선숙, 김남희(2010). 한국 아동 발달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사회 자본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1, 107-141.
- 이석만(2010). 충북지역 전문계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진로자기효능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식(2007).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 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인과 모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세용(1998). 사회적 관계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0(2), 41-72.
- 이순옥(2014). 부모관여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 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경(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인자(2011). 사회자본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사교육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재용(2008). 다산의 심성론과 수양론을 이용한 자기성찰상담. 청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솔(2013). 고등학생의 학교 유형에 따른 진로 자기효능감 수준 및 영향요

- 인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태호(2013). 빈곤이 아동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 사회자본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수(2013).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관여방식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한아(2011). 자기성찰과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조절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경하(2012). 사회적 자본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가정아동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정소영(2016). 초등 고학년 아동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직업포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경인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유정(2017).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업적 실패내성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지능의 매개효과.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경(1992). 부모 · 청소년 자녀간의 대인거리 · 심리적거리 의사소통이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은나(2014). 초등학교 고학년의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독서치료 활용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동민(2015).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진로관련행동이 진로결정몰입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유진(2016).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모의 과보호 및 자기성찰지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현영, 서영석(200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71-684.
- 최현주(2015).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진로인식과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세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추진경(201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질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9).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통계자료.
- 허묘연(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홍설(2006).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진로성숙, 진로 의사결정능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진아(2015). 상담전공 대학원생의 자기성찰 및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 진로탐색효능감의 매개효과.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rnes, L.Howard & Olson. H(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 Bet,N.& Hackett,G.(1981). The relationship ofcareer-related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perceived careeroptions in college wome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399-410.
- Bourdieu,P.(1986). The form of capital. In J. G.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for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Y:Greenwood Press.

- Coleman, J. 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 Coleman, J. (1990). **Foundation of social the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ovey, S. R.(2002). **Celebrations: Quilts for cherished family moments.**  
New York.: Plenum.
- Dubois, D. L., Eitel, S. K., & Felner, R. D. (1994). Effect of family environ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on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iy,** 56(2), 405-414.
- Ferry, N. M. (2006). Factors influencing career choices of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in rural Pennsylvania. **Journal of Extension,** 44(3), 1-6.
- Gardner, H. (1993). **Multiple intelligences: The theory in practice.** NY : Basic Books.
- Gardner, H. (1997). Multiple Intelligences as a Partner in School Improvement. **Educational Leadership,** 55(1), 20-21.
- Gardner, H. (1999). **The disciplined mind: What all students should understand.** NY: Simon & Schuster.
- Gardner, H. (2006) **Multiple intelligence.** 이재경, 문용린(역)(2007). 다중지능.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 Good, G. E., Nord, D., & Solberg, V. S.(1994). Careersearch self-efficacy; Ripe for application and intervention programmi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1, 63-72.
- Hackett, G. & Bets,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 Hamilton, C. E. (2000).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attachment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1(3), 690-694.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4th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otrilik, J. W., & Harrison, B. C.(1989). Career decision patterns of high school senior sin Louisiana.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14, 47-65.
- Lee, V. E., & Croninger, R. C. (2001). The Elements of Social Capital the Context of Six High Schools. **Journal of Socio-Economics**, 30, 165-167.
- O'Brien, K. M., Friedman, S. M., Tripton, L. C., & Linn, S. G. (2000). Attachment, seperation, and woman's vocational development: A longitucional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71-76.
- Phillips, S. D., Carlson, C., Christopher-Sisk, E., Gravino, K. L.(2001b). Making career decision in a relational context.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8(29), 193-213.
-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 Civil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earer, C. B.(1997). **The MIDAS handbook of multiple intelligences in the Classroom**. New York: Boston University.
- Shearer, C. B. (2002). **The MIDAS student high impact project(S.H.I.P):64 Building interpersonal intelligences**. New York: Boston University.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 of Intrapersonal Intelligence  
in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in the family and  
Career Self-efficacy Perceived  
by Highe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k, Soon Hee

Major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ung-Bong

For High graders,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the correlation between social capital in the family, career self-efficacy, and intrapersonal intelligence and to examine whether intrapersonal intelligence has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in the family and career self-efficacy.

The subjects were 415 six graders of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Jeju-do, The measurement tools were Social capital in the family scale,

career self-efficacy scale, intrapersonal intelligence scale.

Correlat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using SPSS 18.0,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the Sobel test were performed to test the mediating effect of intrapersonal intelligence.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orrelat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in the family, intrapersonal intelligence, and career self-efficacy perceived by highe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s a result, children's social capital in the family, intrapersonal intelligence, and career self-efficacy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each other. Social capital in the family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career self-efficacy, and intrapersonal intelligence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career self-efficacy. In addition, social capital in the family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intrapersonal intelligence.

Second,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intrapersonal intellig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in the family and career self-efficacy perceived by highe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s a result, intrapersonal intelligence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in the family and career self-efficacy.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confirmed the relationship and path between social capital in the family intrapersonal intelligence and career self-efficacy perceived by highe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is study shows that career self-efficac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s enhanced by increasing social capital in the family and intrapersonal

intelligence and intrapersonal intelligence has an important mediating effect between social capital in the family and career self-efficac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to develop counseling and experiential programs capable of improving intrapersonal intelligence and to apply them to the field of school. Furthermore, because sufficient social capital in the family is an important resource capable of improving the level of career self-efficacy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m with effective and various social capital in the family at home.

**Key Words** : Social capital in the family, Career Self-efficacy, Intrapersonal intelligence

# 설문지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여러분의 평소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시험처럼 맞거나 틀린 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평소 생각이나 느낌에 가장 비슷한 내용을 하나만 골라** 처음부터 끝까지 답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보다 더 즐거운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오직 연구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단어의 뜻을 모르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선생님께 질문해주시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기 바랍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0년 1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박순희

※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 ① 남학생 (        )    ② 여학생 (        )

학년 : ① 5 학년 (        )    ② 6 학년 (        )

1-1.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표 해주세요.

번호	문항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은 아버지(어머니)로서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한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2	다른 분이 우리 아버지(어머니)였으면 좋겠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3	아버지(어머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아버지(어머니)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5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판단을 믿어 주신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아버지(어머니)에게 화가 난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7	아버지(어머니)는 나를 이해해 주신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우리 아버지(어머니)를 믿는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마음의 부담을 떨쳐 버리고 싶을 때 아버지(어머니)에게 의지할 수 있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1-2. 여러분이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표 해주세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나는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부모님께 나의 생각을 말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께서서는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께서서는 내가 어떤 기분 상태인지 잘 짐작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게 고민거리가 생기면 어려워하지 않고 부모님과 의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부모님에 대한 나의 감정을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무엇을 물어보면 부모님께서서는 솔직하게 대답해주시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부모님께서서는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고민거리가 있을 때 어려워하지 않고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나의 속마음을 부모님께 터놓고 말씀드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공부할 때는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부모님과 대화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관심사나 고민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신다.	①	②	③	④	⑤
15	학교 공부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대화를 부모님과 자주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16	박물관, 문화시설 등 학습에 도움이 되는 곳에 자주 데리고 가신다.	①	②	③	④	⑤
17	학교에서 상을 받아 가면 그에 따르는 보상을 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8	공부에 도움이 되는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2. 여러분이 자신의 ‘진로’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표 해주세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앞으로 5년간의 인생 계획을 간단하게라도 스스로 세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여러 가지 직업들 중에서 내가 관심이 있는 직업을 1-2가지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나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는데 어려움이 생길 경우 해결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직업과 관련된 직장이나 기업이 어디인지 알아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의 적성, 흥미, 가치관, 성적 등을 고려하여 나에게 가장 알맞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가 갖고 싶은 직업을 위해 필요한 교육 정도 (성적, 학과)를 책이나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직업을 얻기 위해 거쳐야 하는 시험이나 면접 등의 절차를 잘 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미래에 어떤 직업이 필요하게 될지 예상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나의 특징을 살려 나를 소개하는 글을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선택한 진로나 직업에 만족할 수 없다면 언제든지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 이야기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내가 관심이 있는 직업에 관련된 TV프로그램이나 책을 즐겨 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나는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책이나 인터넷으로 알아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앞으로 다닐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어렵더라도 미래의 내 직업을 위해 잘 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내가 계획을 세운 일은 어려움이 있어도 실천하려고 항상 노력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내가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갖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나의 소질이나 적성에 가장 알맞은 직업을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는데 어려움이 생길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미래에 나의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을 모두 조화롭게 잘 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미래에 직업생활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이 어떤 적성이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알맞은지 알아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친구나 부모님 등 주변 사람들과 앞으로 나의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처음에 내가 선택한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되더라도 다른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전통적인 남녀 성역할에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미래의 나의 진로와 관련하여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여러분이 ‘나 자신’에 관하여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표 해주세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기 힘든 일을 구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파란색을 보았을 때와 빨간색을 보았을 때 각각 다른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지금 내 기분을 분명하게 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일기를 쓸 때 그 당시의 느낌을 잘 생각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공부할 때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 기분이 어떤지 빨리 알아차린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슬플 때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려 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화가 많이 나더라도 욕설을 하거나 거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숙제나 공부를 다 해놓고 노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기분 나쁜 일은 빨리 잊으려고 애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슬퍼지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평소에 기분을 좋게 가지려고 애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빨리 하고 싶은 일도 내 순서가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갖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바로 사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지 생각해 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친구가 실수로 나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곧바로 화를 내거나 때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게임을 하면 부모님께 꾸중 들을 것을 생각하고 조절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내 차례를 기다린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미래를 위해 지금의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	나는 어떤 공부부터 해야 할지 순서를 생각해 보고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나만의 독특한 재능(특기, 개인기 등)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나의 단점을 발견했을 때 고칠 방법을 계획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방학 때 해야 할 일(공부)의 목표를 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할 때 얼마만큼 할 것인지 정하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몇 번씩 깊이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시험을 볼 때 목표점수를 정해놓고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을 때 친해질 방법을 안다.	①	②	③	④	⑤
28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좋아하는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29	어떤 경쟁에서 지면 왜 졌는지, 어떻게 하면 다음에 이길지를 고민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커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시험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그 이유를 찾아보고 다음 시험에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목표를 달성하면 다음 목표는 더 높게 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계획한 대로 일을 하기 어려우면 현재 상황에 맞게 계획을 고친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는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를 잘 알아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일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지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는 쉬운 목표보다 좀 더 어려운 목표를 세우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37	나는 일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빨리 바로 잡는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께 제출해주세요.